



천주교의정부교구
DIOCESE OF UIJEONGBU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된’(1코린 4,10)
네 분의 순교자들...”



의정부교구 순교자공경위원회

한복정맥 울대고개... 남종삼 성인이 잠들다...



** 남종삼 성인 서울대교구 길음동성당 울대리묘역

① 묘소 위치

양주시 장흥면 산17-2, 서울대교구 길음동성당 울대리묘역 내 가족묘역
BUT 의정부에서 가는 게 훨씬 가깝다... 황사영 묘역과 이웃...같은 면내

② 가족묘역 내 3대 순교자들

-가운데: 남상교南尙敎(아우구스티노, 1783~1866)

-오른쪽: 남종삼 성인이 묘소

-왼쪽 합묘: 남종삼의 부인 이조이(필로메나, ?~1875) 순교자,

둘째 아들 남규희南揆熙(프란치스코, 1863~1892)

** 전주 초록바위 순교. 맏이 남명희(1853~1867) 순교자(시신× 무덤×) 흥봉주의 아들

③ 우리는 왜 순례하는가? 죽음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돼... 삶을 느껴라...

- 순교자들이 남긴 삶의 숨결

- 순교의 은총

- 하느님을 향한 열렬한 신앙의 흔적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

성 남종삼은 어떻게 살았나?



** 남종삼 성인의 생애

- 1817년 丁丑생, 충청도 충주목 태생, 생부 남탄교, 양부 남상교, 의령남씨 부정공파 22세손, 파조는 부정공 남칭, 남종삼의 7대조 남선 이후 판서만 8명 배출 ‘八角亭남씨’ 별칭 붙을 정도.

- 남상교

1816년 진사시...음관... 현풍현감(종6품), 영해부사(종3품), 충주목사(정3품), 박해 직전 1865년 동지돈녕부사(종2품) 지낸 청백리

** 立後 통해 남상교의 양자 된 것 - 남종삼 인생의 전환점

- 신앙은 남상교 부인 광주이씨 통해... 그 영향으로 남상교, 남종삼 입교

- 다산 정약용의 학통 이은 남상교의 훈도로 학문 익혀...1838년(22세에 문과 급제)...홍문관과 사헌부, 사간원 등 삼사의 요직 거쳐 외직으로 나아가 영월 현감(종6품)과 영해부사(종3품) 지내고, 승정원 동부승지(예방 정3품), 우승지(공방), 왕실교육 담당 강제문신, 호조참의(정3품)

- 남상교는 배론신학교 강의, <진도자증眞道自證> 사바낙신부 저술에 영향...

- 정3품 당상관이었으나, 모든 것 포기하고 신앙만 추구..3대 4명의 순교자 내는 고통과 희생 감내...Why?

성 남종삼과 방아책防俄策

-학산 묘재(남상교,남종삼 유택지)



** 방아책은 무엇인가?

-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 확보한 러시아의 남하...

조선 불안 느껴...경흥도호부 부사(종4품)에 통상 요구...

- 이를 계기로 베르뇌 주교와 접촉,

프랑스함대의 힘으로 러시아(아라사)를 막는 방안을 추진...이것이 방아책

- 당시 집권세력인 풍양조씨,

러시아의 남하 서양으로 막자는 이이제이의 방책을 추진해

1865년 베르뇌 주교 복사 흥봉주(토마스)와 김면호(혹은 계호, 토마스)는 대원군의 사돈 조기진 통해 대원군과 접촉 시도.

- 하지만 풍양조씨 세력과 베르뇌 주교 접촉 드러나면서 무산...

1866년 2월 베르뇌 주교 체포, 남종삼은 제천군 봉양읍 학산리로 내려가 부친 남상교와 만나고 있었지만, 이미 박해 예감... 다음은 부친의 당부.

“너는 이미 신하로서 도리를 다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할 일을 다했다.

그 일 때문에 너의 목숨은 이미 결정지어졌다.

뒷날 너에게 결안(結案, 자백 문서)에 수결하라고 할 때

교회에 욕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여라.”

남종삼 일가의 순교

3대에 걸쳐 4명의 순교자 낸 집안



** 남종삼

- 배론에서 푸르티에, 프티니콜라 신부 만나 고해하고, 묘재를 떠나 1866년 3월 1일 고양 잔버들(현 파주 광탄면 세류동) 체포, 3월 6일 결안,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 시신 박순집(베드로) 수습 왜고개, 명동성당, 절두산으로...1968년 시복, 1984년 시성

** 남상교(부친)

- 모든 관직명 삭제(문신사적文臣仕籍), 배교 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 4월 17일 공주진영 옥중 순교. 시신은 사위 박효헌이 거둬 괴산 노장곡 산중 안장, 1966년 울대리 묘역 이장

** 남명희(맏아들)

- 1853년생, 14살이어서 '15세 미만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 따라 1년 뒤 흥봉주의 아들과 함께 전주천변 초록바위에서 교살.

** 이 필로메나(부인)

- 4세 남규희(프란치스코)와 함께 두 딸, 데레사(9세), 막달레나(7세)와 경상도 창녕현(현 경남 창녕군) 유배.. 9년간 종살이 끝에 1875년 3월 2일 유배지에서 교수형 받고 순교.

남종삼의 약전

“정의와 정절과
가난의 모범 보여준 성인”



**김수환 추기경 103위 약전 소개 중 남종삼 항목(성덕에 대한 평판)

- ①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양반과 상인과 천민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르침 믿고 따랐던 성인.
(정의)
- ② 하느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안에서 신앙적 정절을 지켰던 성인
(정절)
- ③ 신분이나 성별, 가문,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과 기쁨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했던 성인
(가난)
- ④ 궁극에는 ‘하느님 사랑 때문에’ 기쁘게 한 생애를 살았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 성인.

남종삼의 후손들

*“나뭇가지를 자른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니다.”*



** 남종삼의 장녀 남 데레사

박진원과 혼인, 언양에서 안성으로 이사, 외동딸 박부경(베르타)의 아들 3형제 중 큰아들 김동언(베드로) 신부, 둘째아들 김동철(마르코) 신부 등 사제로 키워...둘째는 평양 대목구 비현본당 주임 재임하다 6.25전쟁 중 피랍... 현재 시복추진중. ‘하느님의 종’...

** 남종삼의 둘째 아들 남규희

초기 교회 이기양(1744~1802)의 후손 이현교와 혼인했으나, 30세 급서
남상철 유복자로 자라

** 남상철 3남 5녀 낳아 가문 재건...

- 남형우(요한세례자), 남순우(레지나), 남공우(카롤리나) 세 자매 수도자로.(샬트르)
- 장남 남영우(바오로)의 차남 남기윤의 아들 남재현(티모테오) 신부, 인천교구 사제로
- 남영우의 3녀 남기완의 아들 최우주(필립보) 신부는 서울대교구 사제로